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국가신용도 리포트

2009. 12

I. 일반개황	2
II. 경제동향	3
III. 정치·사회동향	9
IV. 국제신인도	12
V. 종합의견	14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Republic of Bosnia-Herzegovina)

I. 일반개황

면적	51천 km ²	G D P	184억 달러(2008)
인구	3.77백만 명(2008)	1 인 당 GDP	4,893 달러(2008)
정치체제	공화국 연합	통화단위	Marka(KM)
대외정책	장기적으로 EU 가입 추진	환율(달러당)	1.34(2008년 연평균)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는 유럽 동남부 발칸반도에 위치한 국가로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및 몬테네그로와 인접하고 있으며 국토 면적은 한반도의 1/4 수준임.
- 보스니아계, 세르비아계 및 크로아티아계의 3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던 보스니아 지역은 1992년 4월 보스니아계의 주도로 舊유고연방에서 분리 독립을 선언하였으나 강력한 민족주의 성향을 지닌 세르비아-몬테네그로 및 크로아티아의 개입으로 1992년부터 1995년까지 참혹한 내전을 겪은 바 있음.
- 이후 NATO 및 EU의 감시하에 정치사회가 안정되고 있으나 이는 각 계파간 자발적 의사가 아닌 국제사회의 압력에 의해 형성된 만큼 내부 갈등요인은 상존함.
- 한편, World Bank는 국제사회 원조로 전후 경제 재건과 사회 안정성 회복에 성공한 국가로 평가하고 있으며, 2008년 6월에는 EU 가입을 위한 안정협력협정(SAA)을 EU와 체결함.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f
경제성장률	5.0	6.9	6.8	5.5	-3.0
재정수지 / GDP	1.0	2.2	-0.1	-4.0	-4.7
소비자물가상승률	3.7	7.5	1.6	7.3	0.2

자료: IMF, EIU

□ 2009년 마이너스 성장

- 2000년대 들어 국제 원조자금 유입이 점진적으로 축소되며 경제성장률이 둔화되었으나, 2004년부터 임금 상승, 가계신용 증가 및 해외거주자 송금 유입에 따른 내수증가와 광물 가격상승 및 수출호조로 5%이상의 경제성장률을 지속하였음.
- 2007년에는 광물·목재 생산증가 및 주택구입대출 증가에 따른 건설부문 호조에 힘입어 6.8%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8년 경제성장률은 다소 하락한 5.5%를 기록하였음.
-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지속되며 상반기 수출이 전년동기 대비 44%, 수입이 전년동기 대비 45% 감소하는 등 2009년 경제성장률은 -3.0%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빠른 경제회복은 힘들 것으로 보이지만, 주요 수출시장인 서유럽 경제가 점진적으로 회복되며 2010년에는 1%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재정수지 적자는 확대

- IMF 대기성차관 도입에 따른 2000~04년 재정개혁으로 재정수지가 안정

적으로 관리되며, 2006년에는 총선 관련 지출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도입 효과로 2.2%의 GDP 대비 재정수지 흑자를 기록하였음. 그러나 재정수지는 2007년 다시 적자로 전환되었으며, 2008년에는 4%의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하였음.

- 2009년에는 사회복지 및 경기부양을 위한 지출 증가와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감소(2009년 상반기 간접세: 전년동기 대비 15% 감소)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는 -4.7%로 확대된 것으로 추정됨.
- 2009년 7월 IMF의 16억 달러 규모 대기성차관 지원 결정으로 공공부문 임금삭감, 퇴역군인에 대한 재정지원 축소 등 강력한 긴축재정 정책 시행으로 2010년 재정건전성은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 2009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 대비 크게 하락한 0.2% 기록

- 2007년에는 가뭄 피해로 일시적 상승세를 보이던 식료품가격이 안정되고, 부가가치세 도입에 따른 물가상승 효과도 사라지면서 전년 대비 하락한 1.6%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하였으나, 2008년에는 가파르게 오른 원자재, 원유 및 음식료품 가격으로 7.3%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하였음.
- 2009년 들어 글로벌 금융위기로 국내외 수요가 크게 침체되고, 원자재 가격 등이 하락세로 돌아서며 2009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2%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우 2009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는 3%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됨.

2. 경제 구조·정책

□ 내전 이후 산업기반 붕괴로 제조업의 경제활동 비중은 작은 편

- 체제전환 이전에는 화학제품·비철금속 생산을 중심으로 중공업이 발달하여 1980년대 이전에는 제조업이 GDP의 50%를 상회하였으나, 내전(1992~95년)으로 산업기반이 대부분 붕괴되어 제조업의 경제활동 비중이 현저히 저하됨. 복잡한 국가 행정체계 및 내전경험으로 인해 공공부문 서비스 규모가 비대하게 성장하며 2008년말 기준 서비스업이 GDP의

53%를 차지하고 있음.

- * GDP 대비 생산비중(2008년): 서비스업(53%), 제조업(23%), 농업(8%)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연방은 식료품 가공·비금속·섬유·임업 분야, 스프스카 공화국에서는 비철금속과 화학제품 분야가 주요 수출산업을 형성함.

□ 저부가가치 제품 중심의 수출구조 및 소비재 중심의 수입구조

- 수출의 26%(2008년)를 비금속 분야가 차지하고 있는 등 저부가가치 중심의 수출구조를 보이고 있지만, 최근 들어 자동차 부품, 기계장치 등 고부가가치 제품의 수출비중이 소폭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수입품목은 상대적으로 다변화되어 있으며, 자본재보다는 소비재에 치중되어 있는데, 이는 국내 소비재의 품질이 열악한 점과 전후 재건사업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함.

□ EU 중심의 교역구조

- EU가 최대 교역 상대방으로 전체 수출의 57%, 수입의 48%(2007년)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 크로아티아 수출이 18.4%(2007년)를 차지하며 단일 국가로는 최대 교역상대임. 또한 중부유럽자유무역협정(Central European Free-Trade Agreement, CEFTA)을 중심으로 동남부 유럽국가들과 역내 교류가 증가하고 있음.

□ 열악한 민간기업 경영여건이 경제성장의 제약요인

- 은행업 대부분이 민영화되며 금융부문의 구조개혁은 상당한 성과를 이룬 것으로 평가되나, 국영기업의 민영화 속도가 느리고, 열악한 경영여건에 기인한 낮은 생산성으로 투자와 고용창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민간부문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주변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편임. 또한 정부의 재정지출은 GDP의 50%에 달하지만 매우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임.

□ 주요 성장잠재력 지표

- * 1인당 GNI(WB): 4,510달러(2008)로 중상위소득국(UMIC) 신규 분류(2009.7)
- * 장기(2000~07년) 평균 실질 GDP 성장률(OECD): 5.3%
- * GDP 대비 국내저축률(OECD): 20.9%(2006) → 25.0%(2007) → 24.4%(2008)

□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액 감소세

- 1999년 외국인 투자진흥청(FIPA) 설립 후 2002년 외국인투자관련 법규 도입과 더불어 적극적인 민영화 추진 노력에 따라 FDI 유입액은 2004년 7억 달러에서 2007년 21억 달러로 증가하였음.
-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기침체가 가시화 되고 정부의 국영기업 민영화 추진이 정체됨에 따라 2008년 FDI 유입액은 10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50% 감소하였음. 이러한 FDI 감소추세는 2009년에도 지속된 것으로 추정됨.

□ 석탄, 철강석 등 풍부한 자원과 민영화를 통한 철강산업 현대화 추진

- 풍부한 석탄과 철강석(약 7억 5천만톤 매장 추정)을 바탕으로 금속산업이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제조업을 이끌고 있음. 정부가 민영화를 통해 내전으로 황폐화된 제철업 부흥에 나선 결과, 세계최대 다국적 철강기업인 Mittal Steel이 Mittal Steel Zenica를 운영중이며 이에 따른 전후방 연관산업의 발전이 기대되고 있음.

□ 16억 달러 규모의 IMF 대기성차관 지원(승인)

- IMF로부터 1998년과 2004년 대기성차관 도입 경험이 있는 보스니아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거시경제가 악화되자 2009년 7월 IMF로부터 16억 달러 규모의 대기성차관 지원협정에 서명(2012년 6월 만기)하였으며, 11월에 첫 집행이 이루어짐.
- 대기성차관 지원을 위한 조건으로 IMF와 보스니아 정부는 사회복지부문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퇴역군인에 대한 지원금 축소, 연금개

혁 및 공공부문 임금 삭감 등의 정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음.

- 그러나 2009년 11월 보스니아를 방문한 IMF 실무진은 긴축재정정책의 미진한 부분을 지적하며, 합의된 재정지출 삭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차 집행이 어려울 수도 있음을 언급함.

□ 유동성 경색에 대응하기 위해 2009년 4월 기준을 인하

- 보스니아 내전 이후, 초인플레이션 경험이 있어 통화 안정성 확보를 주요 거시경제 목표로 삼고 있음. 1998년 이후 통화위원회 제도(1.96KM=1유로)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앙은행은 주로 지불준비금 조정을 통해 통화정책을 수행하고 있음.
- 글로벌 금융위기로 주요 은행의 대출이 감소하자 중앙은행은 2009년 4월 지불준비율을 10%에서 7%로 인하하며 시장내 유동성 공급에 주력하고 있음.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f
경 상 수 지	-1,844	-981	-1,595	-2,764	-1,476
경 상 수 지 / G D P	-17.1	-8.0	-10.9	-15.0	-8.9
상 품 수 지	-4,899	-4,298	-5,704	-7,092	-5,466
수 출	2,555	3,381	4,243	5,194	4,363
수 입	7,454	7,680	9,947	12,286	9,829
외 환 보 유 액	2,531	3,371	4,525	3,515	3,658
총 외 채 잔 액	5,564	5,880	7,203	8,219	8,529
총 외 채 잔 액 / G D P	51.6	48.0	49.2	44.6	51.2
D . S . R .	6.3	9.8	6.6	6.7	7.9

자료: IMF, GDF, EIU.

□ 경기침체에 따른 수입의 감소로 2009년 경상수지 적자는 전년 대비 크게 축소

- 2006년 부가가치세가 처음 도입되며 부가가치 환급혜택을 위한 수출신고의 증가로 상품수지가 개선되며 경상수지도 다소 개선되었음.
- 2007~08년에는 소비재 수입수요 증가로 수입 규모가 급증하며 경상수지 적자폭이 더욱 확대되었으나, 2009년 들어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감소 및 긴축재정 정책에 따른 인프라건설 투자 감소로 수입이 크게 감소하며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는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한 8.9%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2010년 주요 수출시장인 유로존과 발칸지역의 경제가 서서히 회복됨에 따라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는 6%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수출감소 및 경기침체 등으로 외채상환능력은 다소 떨어질 전망

- 총 외채잔액은 2006년 59억 달러, 2007년 72억 달러, 2008년 82억 달러로 증가세에 있으나, GDP 규모의 확대 및 EU지역으로의 수출증가로 GDP 대비 총외채잔액은 2007년 49.2%에서 2008년 44.6%, 총수출 대비 총외채잔액은 2007년 106.9%에서 2008년 101.9%로 하락하였음.
- GDP 대비 공적채무는 2008년 17%에서 2009년 약 20%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되며, 2009년 GDP 대비 총외채잔액 및 총수출 대비 총외채잔액도 전년 대비 증가한 각각 51.2%, 118.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외환보유액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소폭 증가세

- 2008년 3월 45억 달러의 정점을 기준으로 외환보유액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2009년 2월에는 31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다시 증가추세로 전환되며 2009년 8월말 현재 37억 달러를 기록중임.

III. 정치 · 사회동향

1. 정치 및 국제관계

□ 1국 2체제의 복잡한 국가 형태

- 1992년 유고연방으로부터 독립 여부를 놓고 발발한 내전이 1995년 Dayton 평화협정으로 종결된 이후 NATO 및 EU의 감시하에 평화체제가 지속되고 있음.
- Dayton 평화협정에 의거,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BiH)는 이슬람 및 크로아티아계의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연방(FBiH)과 세르비아계의 스프스카 공화국(RS)으로 구성된 1국 2체제의 형태를 취하고 있음.

□ 2006년 10월 총선에 따른 정부 개편

- 2006년 10월 총선으로 Nebojsa Radmanovic(세르비아계), Haris Silajdzic(보스니아계), Zeljko Komsic(크로아티아계)가 새로운 대통령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됨.
- * 대통령위원회: 각 계파 대표 3인이 8개월 단위의 순번제로 의장(대통령) 역임(임기4년).
- RS에서는 총선에서 승리한 독립사회민주연합(SNSD)이 2006년 11월 두 소수정당과 연합정부를 형성하였으며, Milorad Dodik(SNSD)이 현재 총리직을 수행중임.
- FBiH의 경우, 총선결과 민주행동당(SDA) 및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당(SzBiH)가 백중세를 보이며 공무원 임명을 둘러싼 갈등으로 신정부 구성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2007년 3월 말 연립정부 구성에 성공하였음. 2009년 6월 사임한 Nedžad Brankovic(SDA) 총리를 대신하여 Mustafa Mujezinovic(SDA)이 신임총리로 취임하였음.

- 한편, 현재의 정부 운영체제는 다음 총선인 2010년 10월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고위대표부(OHR) 해체시기 무기한 연기

- 고위대표부(Office of the High Representative, OHR)는 Dayton 평화협정 이행 감시기구로 1998년 이후 입법 강제권, 공직자 임명 거부권 및 해임권(일명 “Bonn Powers”)을 보유한 실질적인 최고 행정기관으로 당초 2007년 중반 해체 예정이었음.
- 그러나, 코소보를 둘러싼 지역 분쟁 가능성 및 국내정치의 불안정을 이유로 해체시기가 반복적으로 늦춰지고 있으며, 2008년 중 해체계획도 재연기 발표됨. 현재 친러시아 성향의 RS 정부는 재연장 불가를 주장하고 있으나, 서방세력은 국제적 긴장관계 등을 고려하여 OHR의 존속을 지지하고 있음. OHR을 대신하여 EU Special Representative의 집권이 이루어져야 보스니아의 EU가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2008년 6월 EU와 안정협력협정(SAA) 체결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는 EU 가입을 목표로 2005년 11월부터 안정협력협정(Stabiliz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SAA) 공식 협상을 시작하여 EU가 제시한 각종 개혁 권고사항들을 추진해 왔음.
- SAA 체결의 필수조건인 정책 수립의 중앙화 및 경찰시스템 개혁 등을 놓고 주요 정당간 대립 심화로 서명기한 내 체결이 늦춰질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는 반대로 2007년 12월 조인을 마치고, 2008년 6월 서명함으로써 EU와 SAA를 공식 체결하였음.
- 그러나 2009년 10월에 발간 EU집행위원회의 연례보고서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미진한 개혁진척 수준을 지적하였듯이, SAA 체결에 이어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가 EU가입 후보국의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개혁에 가속도를 더해야 할 것으로 분석됨.

□ 서방과의 군사적 협력 강화

- 2006년 12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는 세르비아, 몬테네그로와 함께 NATO와의 협력강화를 목적으로 한 Partnership for Peace(PfP) 프로그램에 가입하였음.
- * 이는 당시 임박한 것으로 예상된 코소보 독립 문제를 둘러싸고, 지역분쟁 위험 감소를 위한 지역내 친서방 정치·군사협력 체제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되었다고 분석됨.

2. 사회 및 소요사태

□ 코소보 독립선언으로 RS의 연방 탈퇴 주장, 실현가능성 낮아

- 2008년 2월 17일, 코소보(알바니아계)가 세르비아로부터의 일방적인 독립을 선언하자 BiH내 세르비아계인 RS에서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코소보 독립에 반대하는 폭력 시위가 발생하여 미국·독일·프랑스 영사관 건물이 공격받은 바 있음.
- 또한, UN과 EU 회원국 다수가 코소보의 독립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국제사회의 의견이 모아지자 RS도 BiH에서 독립하여 세르비아와 합병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고, 이를 반영하여 RS 의회는 당시 국민투표를 통해 RS도 독립할 권리가 있음을 천명하는 결의안을 압도적인 다수로 채택하였음.
- * 이는 내전이후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BiH의 정치상황이 다시 불안해질 우려를 자아내고 있음.
- 그러나, RS 의회의 상기 결의안 채택과 관련 BiH 주재 EU 대사 및 미국 대사가 강력한 비난 의견을 표명하고 미국과 EU의 Dayton 평화협정 유지 의지를 강조한 점 등으로 볼 때 RS의 독립 실현 가능성은 아직 낮은 것으로 판단됨.

IV. 국제신인도

1. 국제시장평가

□ 주요 기관별 신용도 평가순위

<표 3> 주요 기관별 신용도 평가 순위

기관명	현행	종전
한국수출입은행	D2(2009.12)	D2(2008.4)
OECD	7등급(2009.1)	7등급(2008.1)
Moody's	B2(2006.5)	B3(2004.3)
Euromoney	129/186(2009.9)	116/186(2009.3)
I.I	109/178(2009.9)	102/177(2009.3)

□ 주요 ECA의 지원태도(2009. 11)

- US Eximbank : 제한적 중단기 인수
- 영국 ECGD : 제3국 확인신용장에 대한 단기인수 가능, 중기 제한적 인수
- 독일 Hermes :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음.

2. 외채상환태도

□ 대부분 양허성 외채로 관리부담 낮아

- 파리클럽(1998년 및 2000년) 및 런던클럽(1998년)에서 구유고연방 외채의 일부를 탕감 조치 받았으며, 2003년에는 일본정부에 대한 외채의 1/3이 탕감조치 되었고 나머지는 리스케줄링을 받음. 2008년말 기준 총외채잔액의 50% 이상이 세계은행과 EBRD 등의 양허성 외채로 관리부담이 낮은 편임.

- 2008년말 GDP 대비 총외채잔액은 51.2%, GDP 대비 공적채무는 17%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증가추세에 있음. 월평균수입액 대비 외환보유액은 상품수입의 약 4개월분에 달하는 등 외환보유액 규모는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평가됨.

□ **OECD 회원국 ECA에 대한 연체율은 높은 편**

- OECD 회원국 ECA의 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지원현황(OECD, 2009년 9월말 기준)
 - 단기: 총 지원잔액 2,400만 달러(연체금액: 40만 달러, 연체율 1.7%)
 - 중장기: 총 지원잔액 5.9억 달러(연체금액: 2.7억 달러, 연체율 45.8%)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95.12.15(북한과는 1996.1.19)**

□ **교역 및 투자현황**

- 양국간 교역규모는 2008년 1,848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14% 감소하였음. 2009년 교역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더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한편, 주요 수출품목은 수송기계, 산업기계, 화학제품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신변잡화, 섬유제품임.

<표 4>

양국간 교역현황

단위 : 만 달러

구분	2007	2008	2009.1~11월	주요품목
수출	2,105	1,776	315	수송기계, 산업기계, 화학제품 등
수입	46	72	158	신변잡화, 섬유제품 등

자료: 한국무역협회

- **해외직접투자 현황(2009년 12월 말 기준): 없음.**

V. 종합의견

- 내전 종료 이후 5%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대 EU 교역규모 감소, FDI 위축 등으로 2009년 마이너스 경제성장이 추정됨. 퇴역군인에 대한 지원 및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감소 등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며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는 -4.7%로 확대된 것으로 추정됨.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거시경제의 안정을 위해 IMF로부터 16억 달러의 대기성차관을 지원에 합의하였으며, 긴축재정정책 시행으로 2010년 재정건전성은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임.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외채잔액이 증가하고 있는바, 수출감소 및 경기침체 등으로 외채상환능력은 다소 저하될 것으로 분석됨.
-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는 지속되고 있지만 수출의 감소폭이 수입보다 커지면서 2009년 경상수지 적자규모는 다소 축소된 것으로 분석되며, 국내외 수요 침체 및 원자재 가격 등의 하락세로 2009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크게 하락하였음.
- 한편, 2006년 10월 총선에 따른 정부 개편이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연방(FBiH)은 민주행동당(SDA)과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당(SzBiH) 연립정부, 스프스카 공화국(RS)는 독립사회민주연합(SNSD)과 두 소수정당이 연립정부를 운영하고 있음. EU가입을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EU가입 후보국이 되기 위한 전단계인 안정협력협정(SAA)을 2008년 6월에 체결하였음.

조사역 반형섭(☎02-3779-6665)

E-mail : hsbhan@koreaexim.go.kr